현대차·기아 'K-세일페스타' 참가 신차부터 중고차까지 대규모 할인

싼타페 등 최대 60개월 무이자 할부

신세계 '쓱데이' 연계 프로모션 진행

쏘렌토 등 16개 차종 11% 특별할인

기아 스토어 방문 경품 제공 이벤트도

현대차·기아가 국내 최대 쇼핑 축제 '2026 K-세일페스타'에 참가해 11월 한 달간 대규모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현대차는 차종별 할인에 더해 고객 선호사양 무상 장착과 차량 구매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 '토탈 카 케어'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비롯해 싼타페·팰리세이드 최대 60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신세계그룹 '쓱데이'와 연계한 추가 할인 및 경품 증정, 온·오프라인 고객 이벤트 등을 더해 혜택의 폭을 한층 넓혔다.

할인 대상 차종은 현대차 주요 인기 모델인 ▲아반떼 ▲그랜저 ▲싼타페다. 이와 함께 '스페셜 오퍼(SPECIAL OFFER)'를 통해 제네시스 ▲G80 ▲GV70 특별 구매 혜택도 제공한다.

아반떼 가솔린 모델에는 100만원의 기본 할인 혜택이 적용되며, 그랜저 구매 고객에게도 트림별 인기 사양을 기본 제공한다.

싼타페에는 기본 100만원의 할인을 적용하며, 생산월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다.

현대차는 K-세일페스타 프로모션 차종인 ▲아반떼 ▲그랜저 ▲싼타페 구매 고객 모두에게 차량 구매 이후 활용할 수 있는 최대 60만원 상당의 '토탈 카 케어' 혜택도 제공한다.

오는 30일까지 싼타페와 팰리세이드를 출고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은 36개월, 48개월 또는 60개월의 모빌리티 표준형 할부를 무이자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연 5.6% 금리였던 60개월 할부를 무이자로 이용 시 ▲싼타페 약 540만원 ▲싼타페 하이브리드 약 580만원 ▲팰리세이드 약 670만원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약 740만원의 이자 절감이 예상된다.

제네시스 G80와 GV70에도 특별한 구매 혜택을 마련했다.

두 차종 모두 기본 200만원의 구매 혜택을 제공하며, 생산월에 따라 G80는 최대 5%, GV70는 최대 3%의 추가 가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대차는 고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이벤트도 마련했으며, 신세계그룹의 대규모 쇼핑 행사 '쓱데이'와 연계한 '블루멤버쓱' 프로모션도 마련해 고객 혜택을 확대했다.

또한 30일까지 K-세일페스타와 함께하는 '현대인증중고차' 기획전을 운영한다.

기아는 신차를 비롯해 인증중고차, 전시차 추가 할인, 계약금 지원, 경품 이벤트까지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

이달 신차 출고 고객은 '기특한 페스타(기아 특별한 페스타)'를 통해 16개 차종, 총 1만대에 대해 최대 11%의 특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차종별로는 ▲쏘렌토·타스만 11% ▲K9·EV6·봉고 EV 10% ▲봉고 LPG 9% ▲카니발·K5·K8·EV3·EV4·EV9 8% ▲EV5·PV5 7% ▲니로 6% ▲스포티지 5%의 최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에 기아는 11월 한 달간 전 차종 약 1천대의 전시차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구매 혜택을 제공하는 특별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고객이 K-세일페스타 특별 할인과 전시차 특별 프로모션을 함께 적용받을 경우 쏘렌토 기준 약 550만원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

아울러 '기아 스토어 방문 이벤트'도 운영한다. 전국 기아 지점, 대리점, 드라이빙센터에 비치된 QR코드로 이벤트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총 3천명에게 계약금 지원쿠폰 10만원을 제공한다.

올해는 '기아 인증중고차'가 처음으로 K-세일페스타에 참여해 중고차 구매를 고려하는 고객도 차량 할인과 구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선옥 기자



기아가 국내 최대 쇼핑 축제 '2026 K-세일페스타'에 참가해 11월 한 달간 대규모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사진은 쏘렌토(오른쪽)·카니발 차량. 〈기아 제공〉


제네시스는 최근 인천 영종도 소재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GV90 테크 데이'를 개최하고, GV90의 핵심 기술과 개발 과정을 공개했다. 〈제네시스 제공〉

기술로 완성…제네시스, GV90 개발과정 공개

히든 B필러·세계 최초 루프에어백 적용

eMP 플랫폼 기반 안전·주행 최고 수준

제네시스가 럭셔리의 완성도는 결국 기술에서 나온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2일 제네시스에 따르면 최근 인천 영종도 소재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GV90 테크 데이(GV90 Tech Day)'를 개최하고, '기술로 완성한, 새로운 장인 정신'이라는 슬로건 아래 초대형 플래그십 전동화 SUV GV90의 핵심 기술과 개발 과정을 공개했다.

공개 직후 글로벌 주요 매체들은 콘셉트 카에서나 가능했던 혁신을 양산차로 실현했다고 평가하며, 기존 럭셔리 시장의 판도를 흔들 새로운 플래그십이 등장했다고 주목했다.

제네시스는 GV90 네오룬에 세계 최초의 독립 개폐형 히든 B필러 코치 도어 '네오룬 아치 게이트'를 구현하기 위해 기존 해법을 따르는 대신 도어 힌지와 래치, 차체 구조를 모두 새롭게 개발했다.

또한 차체의 B필러 대신 도어 상단과 하단 두 곳에 래치를 적용하고, 두 래치를 동시에 해제하는 '멀티 릴리즈 컨트롤러'와 도어를 닫을 때 두 래치를 동시에 당겨 잠그는 '듀얼 신칭 소프트 클로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적용했다.

GV90에 처음 적용된 플래그십 전용 eMP 플랫폼을 기반으로, 차량 개발 초기 단계부터 최상위 플래그십 SUV에 요구되는 충돌안전성, 주행성능, 대담한 디자인, 혁신적인 실내 공간이라는 복합적인 요구사항을 어느 하나 양보하지 않고 최고 수준으로 구현했다. /박선옥 기자

기아, EV·HEV '쌍끌이' 매출 3분기 최대

영업이익, 관세 기저효과에 24% 증가

국내 시장점유율 36.8% 역대 최대치

기아가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수요 둔화에도 권역별 파워트레인 최적화 전략을 내세워 3분기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며 성장 모멘텀을 이어갔다. 매출은 역대 3분기 기준 최대를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관세 기저효과에 20% 넘게 늘었지만 시장 기대에는 못 미쳤다.

2일 기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조8천18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4.3%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미국 정부가 자동차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조정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5천300억원 가량의 기저 효과가 발생했다. 판매 증가에 따른 물량 효과(4천420억원), 우호적 환율 효과(5천290억원) 역시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됐다.

3분기 글로벌 도매 판매는 84만7천355대로 작년 동기 대비 7.9% 증가했다. 이중 해외 판매 비중이 83.4%다.

글로벌 소매 판매(82만9천대)도 6.9% 증가했다. 중동지역 분쟁 장기화로 아프리카·중동(아중동) 판매가 23% 감소했지만, 국내와 미국·서유럽 등 주요 시장의 판매 증가로 이를 상쇄했다.

국내 소매 판매(14만1천대)는 EV와 신형 셀토스 판매 호조에 힘입어 2.2% 늘었다. 시장 점유율(36.8%)도 지난해 3분기(32.2%)와 비교해 4.6%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미국 현지판매(23만4천대)도 7.8% 증가했다. 신규 출시한 텔루라이드 하이브리드를 비롯해 스포티지·카니발 등 주력 차종의 HEV가 호응을 얻은 결과다. 3분기 미국 시장 점유율(5.8%)은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다.

1-3분기 기아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4%로 전년 동기(3.6%) 대비 0.4%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중국을 제외한 올해 누적 점유율은 5%다. /박선옥 기자

